



**전북동부보호지청, 임실호국원 정화활동 실시**

전북동부보호지청(지청장 최정길)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일 임실호국원을 방문해 묘역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최정길 지청장을 비롯한 전북동부보호지청 직원 10여 명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참배하고 이어서 묘역 주변을 청소하고 비석을 닦으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최정길 지청장은 "현재의 평화로운 일상은 수많은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민 모두 그 숭고한 뜻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 장수군 하천부지 해바라기 꽃단지 조성**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장계농협(조합장 곽점용)은 농협장수군지부(지부장 정영선), 농가주부모임 장수군연합회와 함께 2일 장계면 하천부지 1,000여평에 해바라기 꽃단지를 조성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깨끗한 농촌마을 만들기 조성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지체되었던 일상이 회복되면서 외부활동이 자유로워지고 있기에 장수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꽃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쉼과 힐링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정재호 본부장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만들기 캠페인은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는 활동이다"면서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가는 지역기여형 ESG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남원시농기센터, 학교4H 과제활동 지원**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는 지난달 25일 학교4H에 선정된 용북중학교 학생들과 과제활동인 농촌현장체험(모종심기, 텃밭꾸미기)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용북중 학생44명과 지도교사 4명이 참가해 이론 교육과 온라인 영상 교육을 시청한 후에 직접 고추·방울토마토 모를 심고 모가 심어지는 과정을 관찰했다. 남원시 학교 4H는 담당교사의 지도 아래 청소년의 리더십을 배양하고, 농심함양, 문화계승, 봉사활동, 생활과제 등 농업·농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심리방역 운영**

부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신학기 적응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심리면역력 증진과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심리검사와 해석상담 및 심리백신(테라피 치유 활동)을 200명의 청소년 및 보호자 대상으로 6월 7일부터 접수를 받아 운영한다. 청소년심리방역은 고위기청소년맞춤형프로그램 사업의 집중 심리지원 일환으로 비대면 또는 대면으로 운영되며, 전화접수 또는 문자로 신청할 수 있다. 심리검사는 성격 및 기질검사, 인성검사 등으로 다양한 심리검사 도구(CI, IBI, mbi, mmpi 등)를 활용하여 연령에 따른 맞춤형 검사를 할 수 있다. 검사 후 결과 및 해석 상담은 대면과 비대면 중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고, 심리검사 참여자 중 동의자 50명에 대해서는 심리면역력 강화 및 일상의 활력을 얻어 빠른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심리백신 활동(항기 테라피, 원에 테라피 등)을 지원하게 된다. 부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일상회복에 따른 안정감과 예기 불안의 양극단을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

**중화산2동 지사협, 참전유공자 가구에 위문품 전달**

전주시 중화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현옥)는 2일 관내 참전 유공자 34가구에 온누리상품권 170매(17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화산2동(동장 소미혜)과 협의체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조공을 위해 희생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추진했으며, 특히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함으로써 직접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7년 설립된 중화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소외 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에 힘을 쓰고 있으며, 상품권 전달 사업뿐만 아니라 직접 만든 목공 소품 나눔, 지역 세탁소와 연계한 이불빨래 지원 사업 등을 펼쳐왔다. 이현옥 위원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었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농협 전북본부 신규직원들, 임실호국원 참배·묘역관리**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정경민)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2일 신규직원 19명과 함께 임실호국원 묘역관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현충일을 맞아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마련된 이날 봉사활동에서 정경민 본부장 이진산 농협 임실군지부장을 비롯한 전북본부 임직원 30여 명은 순국선열 묘소 비석을 닦고 태극기를 꽂으며 선열의 공적을 추모했다. 특히 이날은 입사 100일을 맞은 22년도 신규직원 19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해 호국보훈의 의미를 더했다. NH농



협은행 전북본부는 신규직원의 안정적인 조직 적응과 사기진작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 및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대표은행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정경민 본부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신규직원과 함께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농협은행 임직원 모두가 호국영령의 희생과 용기를 가슴에 새기고 지역사회 발전과 이웃사랑 실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호국보훈의 달 맞아 임실호국원 참배**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2일 국립임실호국원을 찾아 현충단에 참배했다. 이날 참배 행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마련됐으며, 김규현 청장을 비롯해 간부 직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영원히 빛날 호국의 별들을 기리며, 최후의 순간까지 명예로운 임무를 완수했던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되새겨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선도하고, 글로벌 신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지리산국립공원, 멸종위기종 복주머니란 개화**

지리산국립공원원복사무소(소장 윤명수)는 2022년 지리산전복사무소 야생생물보호단이 시행하는 자원조사 모니터링 중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복주머니란 개화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된 복주머니란은 요강꽃·개불알꽃이라고도 불리며 산기슭·밭에서 자생한다. 지리산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서 야생생물보호단 자원조사 모니터링을 통해 개화를 발견한 복주머니란은 높이 15~20cm, 너비 5cm 정도였으며, 작년 발견된 개체수와 비슷하게 확인되었다. 김재갑 자원보전과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야생생물보호단 자원조사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국립공원의 생태·자연 자원 가치를 최대한 보전에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대 기계공학과, 취업역량 강화 특강**

전주대학교 기계공학과가 최근 현대자동차의 수소 전기자동차 개발 현황 및 최근 현대자동차 채용 동향, 지역인재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상용연구소 장진영 책임연구원의 강의로 ▲전주 현대자동차의 버스, 트럭, 엔진, 소재 공장 및 상용사자 등 소개 ▲수소 전기 자동차 개발 동향 ▲현대자동차 취업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조성환 학과장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난 속에서 이번 특강이 전공 분야 진로와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 학생들에게 진로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며, '최근 대규모의 그룹 채용이 아닌 필요부서 요청에 따른 소규모 채용이 이뤄져, 기계공학과 학생들이 대기업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무주부남초 개교 100주년 기념 행사 성료**

무주 부남초등학교교장 구상윤)는 지난 5월 31일 다목적 교실과 운동장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남초는 1922년 6월 1일 개교, 6.25 동안으로 인한 휴교 등을 겪었다. 지금까지 2,541명의 졸업생을 배출, 현재 10명의 재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안동선 교육장을 비롯한 관내의 내빈들과 여러 동문 및 교직원들이 함께 해 100주년을 축하했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동문 노래자랑과 한마음 체육대회를 통해 재학생과 선배배의 끈끈한 정을 나눴다. 구상윤 교장은 "10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지닌 부남초가 앞으로 꽃피어 날 1000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행사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노래자랑에서 1위를 해 TV를 경품으로 수령한 A씨는 "현재 손자가 모교에 재학 중이며 손자의 증조부부터 가족 4대가 다닌 부남초가 자랑스럽다"며 "멋진 학교를 만들어 준 교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부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남초등학교의 정식 명칭은 부남초등학교로, 1983년 개교한 부남중학교와 2001년 3월 1일 초·중 통합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부남초 100년사를 영상에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 상영화와 불꽃놀이로 흥을 돋웠다. /정은성 기자·무주=전문성 기자



**고창군, 동호해수욕장 명품숲길 일원 환경정비**

고창군이 야간 경관조명으로 유명한 동호해수욕장 명품숲길 일원에 제조작업 등 환경정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정비는 동호 명품 숲길 일원 약7500㎡에 대해 제조작업과 쓰레기 줍기 등을 실시한다. 고창군은 제조작업을 통해 잡초, 냉콜류 등을 제거해 진드기와 모기 등 각종 해충 서식을 방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동호 명품 숲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관광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군은 사업 시행 전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동호 명품숲길 환경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창군 해양수산과 흥민수 과장은 "최근 명품 숲길 경관조명으로 인산성시로 소문난 동호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환경정비로 관광객들에게 더 쾌적한 관광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장수군가족센터, 아빠랑 자녀랑 요리대회 개최**

장수군가족센터는 최근 '아빠랑 자녀랑 요리대회 요리룩 조리룩'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초등 및 중학생 자녀와 아버지 총 10가정이 참가했으며,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주재료로 한 찬자 요리 대회로 펼쳐졌다. 요리원성도 창의성, 소통 등의 함축으로 평가해 창의요리상과 으뜸소통상을 오전, 오후 각각 2명씩 시상했으며, 부상상으로 온 가족이 영화를 보며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도록 영화상품권을 수여했다. 대회에 참가했던 한 아버지는 "대회에 참가하면서 딸과의 대화가 부족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 딸과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한 아버지는 "일주일 전부터 아들과 어떤 요리를 만들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며 요리 레시피를 만들고 연습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의미있고 즐거웠는데, 대회 우승까지 즐겁고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전했다. 장수군가족센터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아버지, 자녀와의 소통 및 유대감 향상 외에도 가정 내에서 아버지들이 가사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기자